

국립광주과학관·광주일보 공동주최 '제1회 필 사이언스 포럼'

“만지고 느끼는 과학 체험문화가 노벨상 만든다”



광주일보와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지난 24일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필 사이언스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최근 대전에서 열린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와 '세계과학관 심포지엄'과 맞물려 진행된 행사였다.

이날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PCST)의 창설자이자 이사를 맡고 있는 캐나다 퀘벡 대학교 버나드 쉴레(Bernard Schiele) 교수와 일본과학커뮤니케이터협회장인 츠쿠바대학 마사타카 와타나베(Masataka Watanabe) 교수를 초청해 강연과 토론회를 가졌다. 버나드 쉴레 교수는 '북미지역 과학관 현황 및 과학문화'를 주제로, 와타나베 교수는 '일본 과학관 내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에 앞서 오전에는 국립광주과학관 강신영 관장과 조숙경 과학문화전시본부장, 광주일보 운영기 문화미디어부장 등과 함께 과학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과학관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쉴레=와타나베 교수는 올해 일본의 과학자 2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현재 과학분야에서 일본은 역대 노벨상 수상자를 21명이나 배출했다"며 "그들은 명문대 출신이 아닌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는 "과학 영재를 위한 교육시스템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선진화돼 있는데, 과연 좋은 현상인가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쉴레 교수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결코 색다른 결과물을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신영 관장은 현재의 경쟁적인 시스템이 아이들을 가뭄두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유와 창의력을 줄여줄까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

앞으로 과학관은 학업에 쫓겨온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곳으로, 또 '인재양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고민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광주의 예술과 과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과학관의 역할에 대한 윤 부장의 질문에 쉴레 교수는 현재 광주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빛 특별전'을 예로 들었



과학도시 광주 어떻게
지난 24일 열린 '제1회 필 사이언스 포럼'에서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광주일보 운영기 부장·버나드 쉴레 교수·강신영 관장·마사타카 와타나베 교수·조숙경 과학문화전시본부장)

석학 쉴레·와타나베 교수 “과학관, 지역인재 양성 역할”

인기만화 등 문화·의학 접목해 다양한 연령층 확보해야

과학지식 갖춘 퇴직 교사·대학원생 ‘커뮤니케이터’로 활용

다. 빛이라는 기본적인 과학요소이자 어려운 분야를 예술가들이 흥미롭게 해석했다고 평가하면서, “책을 통해 이론에서만 배울 수 있었던 과학을 만지고 체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과학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와타나베 교수는 “과학관 방문이 직접적인 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술인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그들에게 과학관이 또다른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문화 확산 위한 방안 찾아야=일반 시민들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법한 과학과 예술이 실은 일상 속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와타나베 교수는 일본의 과학관을 예들 들면서 ‘어른들을 위한 콘텐츠’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은 각 분야 아티스트들을 섭외해 과학 관련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애니메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은 공평이와 발효 과정이 소개되는 ‘모야시몬’이라는 인기 만화를 가져와 특별전을 열었던 것을 소개

하며, 당시 20~30대 방문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쉴레도 이에 동의하며 ‘타겟팅 전략’에 힘을 실었다. 그는 건강과 의학을 접목한 콘텐츠도 방문객 연령층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과학과 문화, 생활, 의학 등을 접목해 다양한 연령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체험형 전시물’을 강조했다.

또 과학관은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아내기 가장 좋은 곳으로, 이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밌게 설명해줄 수 있는 ‘과학커뮤니

케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열리는 ‘과학 페스티벌’에서 과학적 지식을 갖춘 커뮤니케이터를 확보해 방문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대학원생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터 양성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당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퇴직 과학교사’ 활용도 논의됐다.

버나드 쉴레 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량이 늘어나고 홀로그램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영재를 길러낼 수 있는 지역의 중요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광주과학관만의 특색있는 전시 등 끊임없는 고민과 다양한 소통채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글·사진=박기용기자 pboxer@



버나드 쉴레·마사타카 와타나베 교수가 강연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개발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이즈소프트 김준오 대표와 직원들.

홈페이지 만들기 어렵지 않네요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 (주)이즈소프트, 시스템 개발

따로 전문가를 두지 않고도 SNS 개설 보다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할 수 없을까.

홈페이지 개발업체인 (주)이즈소프트(대표 김준오)는 인터넷 관련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고충과 하소연에 주목,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s Management System·CMS) 솔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인 기업시대에서 전문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 없이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콘텐츠를 추가·편집 등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즈소프트가 이같은 고민에서 만든 프로그램(E-CMS v1.0)은 기업들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도, 사이트명, 메뉴를 간단하게 입력하고 클릭 몇 차례

만으로 웹사이트 제작·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와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차별화를 꾀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프로그램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획득했고 광주시의 ‘청년창업기업 지원사업’ 우수상도 받았다. 1세대 버전 개발 1년 만인 2013년,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2세대(E-CMS v2.0) 버전 개발에 성공했고 기능을 향상시킨 3세대 버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강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면서 투자처 발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홍보·판매 마케팅 노하우까지 지원받으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준오 대표는 “보완성이 뛰어나면서 전문지식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사이트를 제작,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 우뚝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MIG(Made In Gwangju) APP

시각장애인에 뉴스 읽어주는 ‘공익 앱’

디자인주스 ‘OSIM’



디자인주스(대표 정우주)의 ‘OSIM’은 광주시 청년창업기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개발된 광주지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뉴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다.

‘OSIM’은 ‘Out of sight, In of Mind’의 약자로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역의 뉴스를 음성지원기능을 통해 대신 읽어주는 공익적인 성격의 앱이다.

음성인식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카테고리별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광주시의 정책과 일자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주스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13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에 입주해 지원을 받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10월 31일까지)

상담문의
010-3605-5000

담양 금성면, 송학랜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담양댐 하루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시세/감정가 - 30억 정도
- 급매 - 17억 2천만원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 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18억이상 재대출 가능)

금호동 7층,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01호, 건 120평, 사면유리, 전망최고
- 과거, 뷔스바(7080) 운영
- 시세/감정가 - 7억 정도
- 급매 - 5억 2천만원 (용자 3억 6천만원 포함) (1년후 5억이상 재대출 가능)

경매투자자

- ▶ 투자 하실 분! 단독/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돈·빌려주실 분! 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